

서태지·아이유·위너...케이팝 모든 것 보여줬다



홍콩서 열린 6번째 MAMA...1만여명 표팬들 열광

케이팝 과거·현재·미래 가수들 한자리 서태지, 후배들과 합동무대 팬들 환호 이승철 영어버전 '통일송' 감동의 물결 지드래곤·태양 등 다양한 무대도 인기

3일 홍콩의 밤은 케이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갔다.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 아레나에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엠넷 아시아뮤직어워즈(MAMA)가 펼쳐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가수들이 케이팝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팬들을 만나기 위해 무대를 찾았다. 1990년대 한국 대중가요를 이끈 이승철, 서태지와 현재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엑소, 지드래곤, 태양, 아이유, 걸스데이 그리고 미래를 끌어갈 위너,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올해 MAMA의 로고는 과거, 현재, 미래

로 진화해가는 미디어의 이미지로, 브라운관 부품에서 태블릿 PC 스크린으로 바뀌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에 어울리게 MAMA 출연진도 2009년 'MAMA'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해 5회까지 구성해온 아이돌 위주에서 벗어나 케이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뮤지션들로 다양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출연자는 단연 서태지. 이날 공연장을 찾은 1만여 아시아 팬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서태지는 후배들과 협업 무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아이유와 '소격동'을, 블락비의 지코와는 '캠백홀'을 부르며 케이팝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서 선보였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무대"라고 밝힌 지코는 서태지가 데뷔한 1992년에 "세상에 데뷔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케이팝의 과거를 대표하는 또 다른 가수 이승철은 홍콩 어린이합창단과 통일송 '그날에'의 영어 버전 '더 데이'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엑소, 인피니트, 씨스타 등 아이돌 가수들의 댄스음악뿐 아니라 지드래곤X태양, 정고고와 씨스타의 소유, 팝가수 존 레전드와 소녀시대의 티파니 등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가수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다양한 방법으로 케이팝의 매력을 알리기도 했다.

엑소를 보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홍콩에 온 일본 여성 몬마 노리코(33)씨는 "일본보다 한국의 아이돌이 훨씬 더 귀엽고 멋지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엑소의 인기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주최사인 CJ E&M은 MAMA를 통해 케이팝을 통해 문화적 영역을 넓혀줬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방송콘텐츠부문 엠넷본부 신형관 상무는 "음악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패션, 뷰티 등을 연계하고 케이팝을 확장시켜 산업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아이유와 그룹 엑소 그리고 걸스데이(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는 케이팝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이들은 3일 밤 홍콩에서 열린 엠넷 아시아뮤직어워즈(MAMA)에 무대에 섰다. 사진은 MAMA에 앞서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 | CJ E&M

연예뉴스 스테이션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대한의사협 윤리위 회부

고 신해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서울 A병원 강도 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3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강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사와 함께 학자,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윤리위원회는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강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드라클라' 김준수 올해 최고의 뮤지컬 배우

김준수(사진)가 올해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뽑혔다. 김준수는 뮤지컬 전문지 '더 뮤지컬'이 실시한 '올해 최고의 뮤지컬 배우' 설문조사에서 남자 배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3일 "김준수가 50%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올 해 뮤지컬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준수는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 뮤지컬 '드라클라'에서 드라클라 백작 역을 열연하며 호평을 받았다. 한편 김준수는 30일과 3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연달아 콘서트 '2014 XIA Ballad&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 vol.3'를 펼친다.

이효리, 유기농품 판매 논란...계도 처분으로 일단락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밝히며 판매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가 담당 기획사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해당 사안은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리가 유기농 인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정부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계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효리는 최근 자신이 키운 콩을 '소금대 유기농 콩'이라는 이름으로 자택 인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기농 인증' 논란을 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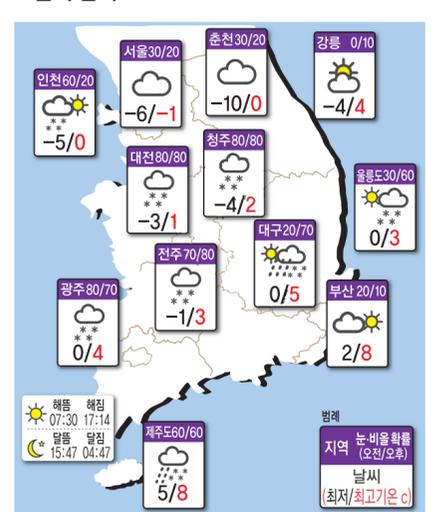
염정아 '올해 여성영화인' 천우희 '올해 여성연기자'

배우 염정아(사진)가 올해의 여성영화인에 선정됐다. 또 천우희는 올해의 여성연기자로 뽑혔다. 여성영화인모임(대표 채윤희)은 3일 2014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영화 '카트'의 주인공 염정아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염정아가 '카트'의 캐릭터

에 동화된 진심 어린 열연을 통해 '제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한공주'의 천우희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기상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배우 김지미는 공로상을 받는다. 이 밖에도 '도희야'의 정주리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출·시나리오 부문, '수상한 그녀'의 임지영 프로듀서는 제작·프로듀서 부문,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은 단편·다큐멘터리 부문, '끝까지 간다'의 오소라 사운드 디자이너는 기술 부문, '수상한 그녀'의 마케팅사 홍보진진은 홍보마케팅 부문을 각각 수상한다. 시상식은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안국동 씨네코드 선재에서 열린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 김형주 기자 minigram@donga.com

오늘의 날씨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5일(금)-9~3 3~10 -2~2 -6/1 -1~2 -3/3 3/6
6일(토)-8/1 -11/1 -6/1 -3/3 -4/4 4/8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윤태호 파워! 연재웹툰 '파인' 벌써 영화 결정

'이끼' '내부자들' 이어 3번째 영화화 제작비 100억원...내년 초 제작 돌입



영화 제작은 '이끼'를 공동 제작한 헛웃 필름이 맡는다. '파인'은 1970년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유물을 실은 보물선이 발견되고, 이를 노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 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역시 웹툰

'윤태호 파워'가 거세다. 인기 웹툰 '미생'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사진)의 신작 '파인'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2010년 강우석 감독이 연출한 '이끼'와 이병헌·조승우 주연의 '내부자들'에 이어 세 번째다. '파인'은 현재 한창 열연 중이다. 아직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았는데도 영화 제작을 위한 판권 계약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정도다. 그동안 윤 작가가 이야기꾼으로서 보여준 실력에 대한 영화계의 높은 관심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od 박준형, 13세 연하의 승무원과 1년째 열애

그룹 god의 만능 박준형(45·사진)이 항공기 승무원과 열애 중이다. 11월16일 SBS '룸메이트'에 출연해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박준형은 13세 연하의 한 항공사 승무원과 1년째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매우 잘 맞는다. 웃음을 아끼지 않는다. 어디 가서도 눈치 보지 않는 털털한 성격이다.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관심은 이제 박준형이 노총각 딱지를 떼느냐 여부에 쏠린다. 박준형은 여자친구를 자신의 가족에게 이미 소개했고, 여자친구도 박준형의 가족과 스스

3일 한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준형의 여자친구는 이른바 '현모양처' 타입이다. 상당한 미모를 지닌 여성으로,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아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요리 실력도 남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매력에 빠진 박준형은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리고 있다. 박준형은 '룸메이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나하고

의 구조와 설정을 그대로 따를 예정. 제작 규모 100억원으로 내년 초 제작에 돌입해 2017년 개봉을 목표로 한다.

윤 작가의 또 다른 웹툰 '내부자들'은 내년 개봉을 준비 중이다.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는 언론과 정치권력의 유착과 대립을 긴장감 있게 그려낸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윤 작가를 향한 영화계의 구애가 뜨거운 이유는 기발한 소재와 그를 뛰어넘는 탄탄한 스토리의 힘 덕분이다. 더욱이 최근 웹툰이 영화의 소재 창고로 적극 활용되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영화 투자사의 한 관계자는 3일 "윤태호 작가 작품에는 치밀하고 치열한 취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가 취합돼 있다"며 "웹툰을 그대로 시나리오로 활용해도 될 만큼 짜임새가 탄탄하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트위터@madeinarry

'제2의 보아'였던 가수 조앤 26세 꽃다운 나이로 지다

美서 교통사고로 사망...에도 물결



가수 조앤(이연지·사진)이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3일 고인의 유족과 통화를 나눈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앤은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26일(미국시간)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2일 숨을 거뒀다. 조앤은 그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 카운티에 거주해 왔다. 현지 물류회사를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아 가던 터였다. 스포츠동아가 3일 세상에 부고를 처음 알린 뒤 연예계에서는 조앤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

9월 중국 여배우와 결혼하고 현지에서 배우로 활동 중인 조앤의 오빠이자 그룹 테이크 출신 이승현은 비보를 접하고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는 이날 중국 웨이보에 "26년 동안 멋지고 놀라운 동생을 내게 있게 해주 정말 감사하다. 넌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다시 신의 곁으로 갔지만, 너무나 그리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항상 사랑한다. 조앤"이라는 글을 올리며 비통해 했다.

조앤은 2001년 작곡가 김형석에게 발탁돼 '햇살 좋은 날'이란 노래로 데뷔했다. 당시 13세 나이의 조앤은 순수하고 깜찍한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어린 나이를 무색케 하는 실력으로 '제2의 보아'로 불리기도 했다. 2002년 SBS 시트콤 '오렌지'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이어갔지만 이후 집안 사정으로 가수 활동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2012년 '슈퍼스타K4'에 출연했지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